

● 『발명하는 사람들』에 말한다

해결의 열쇠는 늘 가까이 있다

등잔 밑이나 형광등 위를 보아라!



김 병 오

전국발명교육연구회 회장
(inv.or.kr/ajukbo@hanmail.net)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계절이 왔다. '이번에야말로 꼭 연인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 즉 '등잔 밑이나 형광등 위가 어둡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자신과 평생을 같이할 아름다운 사랑은 가까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 단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무심히 넘겨버리거나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해 보배와도 같은 귀중한 사람을 놓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점쳐보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자. '해결의 열쇠는 늘 가까이 있다.' 이제 사랑하는 연

인을 찾기 위해,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멋진 발명품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발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즉 좋은 아이디어를 쉽게 얻으려면 우선 자신의 생활주변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주변의 생활용품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또 수정하여 발전시키면 그것이 곧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얻는 지름길이다. 특히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도구, 시설 등에서 찾아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한다. 세숫대야, 거울, 비누상자, 수건, 칫솔, 치약 등이 있고, 식탁에는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 숟갈, 젓가락, 조미료 통, 주전자, 쟁반, 이쑤시개 등 수없이 많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도구이다. 또 학생은 필통, 노트, 사프펜슬, 그리고 책가방과 같은 학용품과 함께 생활하고, 회사원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럼 주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멋진 발명품을 만든 꼬마 발명이 울릉태화초등학교 5학년 김현호군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의 발명품은 '제24회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전'에서 국무총리상의 영광을 누린 '환경 낚시 추'. '제가 사는 울릉도가 버려지는 낚시 추 때문에 오염된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어요'라고 말한 김군은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 낚시를 가서 낚시 추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에 빠졌다.

김군은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추 한쪽 끝에 낚시줄 고정홈을 파고 추의 뒷면 낚시줄이 지나가는 자리에 낚시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홈을 팠다. 두 개의 구멍으로 끝어낸 낚시줄을 고정 홈에 걸어 손쉽게 낚시 추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낚시대에 추를 쉽게 달고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추와 낚시바늘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호군은 울릉도에 살기 때문에 낚시 추를 수시로 볼 수 있었고, 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쉽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 내용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더 쉽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 서울에 사는 학생이 충남 공주의 할머니 집에 갔다가 힘들게 밭 가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밭을 갈 수 있는 기구를 발명해 서울 학생발명전에 출품한 것을 심사한 적이 있다. 이 학생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다른 심사위원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만약 공주에서 직접 밭을 재배하는 가정의 자녀(학생)가 그 아이디어를 냈다면 아무리 서투른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써 아이디어는 자신의 주변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것부터 찾아라!

우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기억해야 한다. 처음 발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한다면, 또는 단번에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증을 얻어내는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발명에 대한 태도가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발명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어 자신감과 도전하려는 의욕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경제성 있고, 좋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발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신이 얻는 결과에 비해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것들, 즉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결국 손해가 아닐까? 따라서 시작은 작고 불품없는 것이라도 발명에 대한 자신감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할 것이며, 결국 멋진 아이디어로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사소한 과제를 해결하여 큰 결과를 얻은 아이디어 성공사례를 이야기 해보자. 여성용 란제리 브랜드 비너스에서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씨는 엉덩이에 딱 끼는 바지를 입고 싶었지만 팬티선이 문제였다.

팬티선을 없애라! 이것이 김씨의 고민거리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사소한 것이었다. 김씨는 팬티라인을 없애기 위해 힙선을 따라 레이스를 장식하거나 고무원사 테이프를 덧댄 팬티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레이스 팬티는 피부에 닿는 촉감이 거친 데다 오래 입으면 끝선이 말려 올라가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해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서 나왔다. 2년 전 자신의 계열사인 C사에서 울이 풀리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한 햄(HAM)이란 원단을 만들어 거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착안한 김씨는 팬티 끝부분에 신축성이 뛰어난 3cm폭의 햄라인을 두었다. 이 제품이 바로 개발한 지 6개월만에 30억원 어치의 매출을 올린 대박의 '비너스 햄(HAM) 팬티'였다.

인터넷에도 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다. 컴퓨터가 놓이고 인터넷이 깔리면 바로 지식정보사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런 생각은 도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 사회가 참된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인터넷 보급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용도로,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등의 아이디어(창의력)를 얻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이 아닐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가 무엇일까? 세계 최대 석유회사로 떠오른 엑슨-모빌사는 합병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메인을 쟁기지 않아 한국인 청년 문모씨에게 그 권리를 선점 당했다.

문모씨는 엑슨-모빌사가 합병을 발표하기 한달 전에 www.exxonmobil.com과 www.exxon-mobil.com 등 2개의 도메인을 미국 내 도메인 관리회사에 건당 70달러에 제 빨리 등록했다. 엑슨-모빌사는 이 도메인을 거액을 주고 되사들이거나, '엑슨-모빌'이라는 이름으로 된 주소를 포기하고 고객의 불편과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 다른 주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이 작은 아이디어라는 것에 공감할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임에는 공감을 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아이디어의 언어 발명을 하려면 자신과 가까운 곳, 즉 생활주변이나 관심사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또한 작은 것, 즉 주변의 사소한 것, 그리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며 우리의 생활 속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터넷에도 관심을 가져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어느 누구라도 집에 등잔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속 마을에 가야 볼 수 있을 것이고, 박물관에 가야 있고, 멀리 서외로 나가 어느 전통 찾집의 모퉁이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광등은 모두 갖고 있다. 그럼, 의자를 놓고 형광등위를 한번 쳐다보자. 형광등 위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사용될 새로운 손전등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자.

자신의 주변을 천천히 살피면서 한바퀴를 돌아보면 마음의 등잔불이 보일 것이다.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젓히면서 생각 잠겨보면 번쩍이는 형광등 불빛이 보일 것이다.